



2024년 7월 14일(제1202호) 연중 제1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피건발은 이의 자유로운 발걸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손수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둘씩 짝을 지어 파견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명씩 보내는 이유는 재판할 때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민수 35,30), 복음을 증언할 증인의 개념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그런데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복장이 굉장히 단출합니다. 지팡이 말고는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빵, 여행 보따리, 돈, 여벌 옷도 없이 나들이 가듯 가볍게 떠납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물론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문화가 있기는 했지만, 야생동물이나 강도 등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미지의 두려움 앞에서 무모해 보일 정도로 가벼운 차림새입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무모한 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셨고, 선포해야 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권한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크게 미련 갖지 말고 발밑의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가벼운 차림새에 더욱 가벼운 발걸음을 달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일이었으면 진작 어그러졌을 일이지만, 하느님의 일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 선포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 선포를 받아들였고, 그 열매가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상대의 몫이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자유롭습니다.



박재술(요셉) 신부
제주해군(해군 제7기동전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아모 7,12-15

회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독 시

에페 1,3-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르 6,7-13

영성제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다섯 번째 시집

모친은 그러한 험박이 아무 성과가 없음을 보자, 그의 큰아들에게 일러서 동생을 죽이라고 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겁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형님께 의하여 기쁘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함께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지도 않으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모든 가족과 영원히 작별하고 먼 지방으로 도망가서 천주교를 믿겠습니다.”

마침내 모친은 설복되어서 아들과 화해하였고, 아들에게 “네가 좋게 여기는 것이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조상의 위패와 미신 물건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밤중에 일어나 모친과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 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 전에 자기가 복음을 들었던 마을로 갔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갑자기 부자에서 가난뱅이가 되었고, 교만한 양반에서 비참한 시골뜨기로 변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지루하지 않으시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관장이 한 관아의 관기(官妓) 중 한 사람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에는 오랜 관습에 의한 제도로서 각 고을마다 기방(妓房)이라는 여자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 단체는 사춘기 소녀들이 고을 관장에게 시중을 들게 될 나이에 이를 때까지 교육받고 관기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 어린 처녀들은 원님이나 어떤 남자가 나타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기적(妓籍)에서 삭제하여 자기의 첩으로 삼기 전에는 각 고을 관청에 매여 있어서, 어느 서방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없고, 다만 관장이나 아전들의 성욕을 만족시켜 줄 준비를 하는 기생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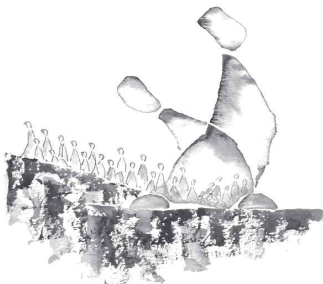
조선에는 또 통인(通引)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관장에게 시중들기 위하여 사춘기 소년들을 뽑아 둔 단체입니다. 통인들은 통상적으로 아전(衙前)의 아들들인데 장가들기 전에 통인 노릇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만 아전이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늘 사람



그대 어디를 보는가.
그곳이 그대를
설명할 것이오.

그대 하늘의 사랑아.
그대 따뜻한 사랑아.
하늘이 그대를
증언하게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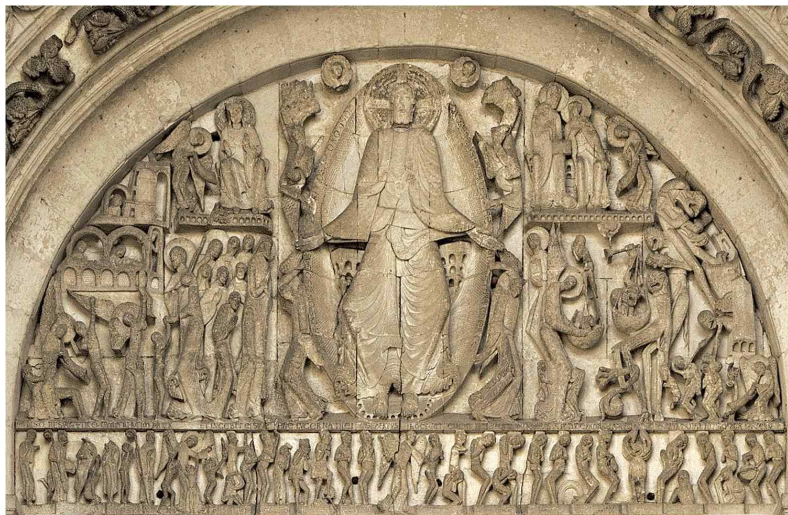
그대 누구를 찾는가.
그들이 그대를
보여줄 것이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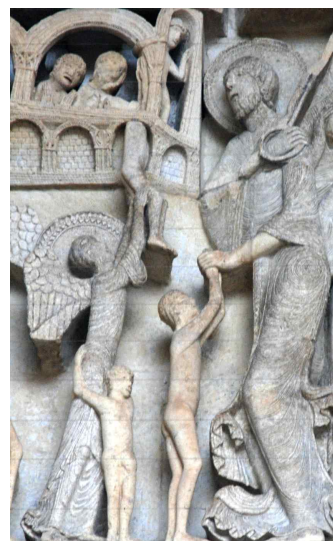
마리아 막달레나의 형제로,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시키신 라자로 성인의 뼈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져 많은 순교자들이 방문했던 성 라자로 성당의 출입구 위에 조각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팀파눔(Tympanum)이다.

직지 미상 / 1000년경 제작
 성 리지로 성당
 오통, 프랑스

팀파눔은 주로 반원 형태로 제작되는데, 중앙에 커다란 만돌라(Mandorla, 머리만 기리키는 호광이 아니라, 인물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신성한 빛을 상징한다)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는 천상이, 오른쪽에는 지옥이 묘사되어 있다. 아래에는 이 모든 광경을 가로지르는 린텔(Lintel)에 인물들이 제작되어 있다. 일단 중앙에 거대한 크기의 예수님을 둘러싼 만돌라는 네 천사가 받치고 있다.



▶ 그 바로 옆(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옥좌에 앉아 계신 성모님(파란색 원)과 최후의 심판을 일리는 나팔을 우렁차게 불고 있는 천사가 보인다.



▶ 그 옆과 이리에는 성전/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이 모든 광경을 기도 속에 묵도하는 성인들과 천사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 않은 영혼들이 천사에 이끌려, 폭은 천사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오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상요셉(부시교) 윤기훈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성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 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활동: 군 부대 위문, 교구 내 행사 시
 문의: 010-6276-2709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